

챔피언스필드, 관중은 ‘대박’... 승리는 ‘절박’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연일 구름 관중이 찾으면서 14경기 누적 관중수가 21만2379명에 이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넥센전에서 끝내기 승을 거둔 KIA 선수들이 만원 관중의 환호를 받고 있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새 야구장 보러가자” 수도권 등 전국서 발길
을 21만2379명 입장...전년비 114% 늘어
KIA 선수들 이젠 성적으로 응답할 차례



챔피언스필드가 야구팬들의 열기로 뜨겁다.
지난 5일 KIA와 넥센의 경기가 열린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에 2만2000명이 찾으면서 시즌 5번째 매진이
기록됐다. 경기 전 이미 예매를 통해 매진에 가까울 정
도로 표가 팔려나가면서 이날 오후 12시18분 매진 사
례를 이뤘다. 세 경기 연속 매진은 지난해 4월26일부
터 28일까지 계속된 삼성과의 경기에 이어 처음이다.
4월1일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인 뒤 지난 5일까지 챔
피언스필드에서 열린 14경기에 21만2379명이 다녀갔
다. 비가 오락가락했던 4월29일 시즌 최소관중을 기
록했지만 이날도 5161명이 경기장을 찾아 야구를 즐
겼다. 지난 시즌 68경기에서의 누적관중이 47만526
명. 14경기를 치른 현재 지난해 40%에 이르는 관중이

경기장을 채우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5170명에 이른다. 지난해
평균 관중 7352명에 비해 무려 114%나 증가한 수치
다. 지난 시즌까지 KIA가 안방으로 사용한 무등경기
장 수용인원은 1만2500석.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자면
전 경기에 매진 행진이 계속된 셈이다.
7위라는 답답한 성적에도 새 구장에 대한 관심과 연
휴 효과가 더해지면서 구름관중이 몰렸다.
관중친화형 구장으로 소문난 새 구장을 직접 보기
위해 전국에서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KIA는
물론 상대팀 원정관중까지 속속 광주로 발걸음을 하
면서 개막 한 달 만에 챔피언스필드는 야구 명소로 자
리매김을 했다.

어린이날이 낀 황금연휴에는 서울 등지에서 먼길을
달려온 야구 팬들로 터미널과 광주역까지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팬들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
고 있다. 지난 4일 넥센전에서 손승락을 상대로 동점 3
점포를 쏘아올리며 짜릿한 역전극의 발판을 놓은 외
국인 선수 필도 ‘응원의 힘’을 얘기했다.
올 시즌 6개 홈런 중 5개를 안방에서 쏘아올린 필은
“관중이 많으니까 경기를 하면서 기분이 업되는 것 같
다.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먼길을 오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팬들. 이제
는 KIA가 성적으로 팬들의 성원에 응답할 차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 5할 출루

콜로라도전 3타수 2안타 1볼넷
5경기 연속 멀티히트
타율 0.370...5경기 연속 3출루
2003년 로드리게스 이후 첫 대기록

‘1억 달러의 사나이’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메리칸리그(AL)에서도 ‘최고 리드오프’ 고지를 향
해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추신수는 7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3타수 2안타와 볼넷 1개를 기록, 하루 세 차례 이상 출
루 기록을 개인 타이인 연속 5경기로 늘렸다. 타율은
0.370으로 올랐고, 출루율도 0.491에서 0.500으로 뛰
어올랐다. 모두 AL 1위를 달리는 기록이다.
◇AL서도 손꼽히는 톱타자로 우뚝 선 추신수가
아메리칸리그까지 정복에 나섰다.
5경기 연속 3출루 이상 기록은 2003년 알렉스 로드
리게스 이후 처음 나온 기록이다. 2000년 이후 AL 1
번 타자 가운데 5경기 이상 이 기록을 이어간 사례는
추신수를 포함해 역대 10차례뿐이다. 6경기 연속 3번

이상 출루가 세 차례 나온 것이 역대 최고 기록이다.
5할을 찍은 출루율 역시 기록적이다. 5월에 0.500
이상의 출루율을 기록한 것은 폴타임 메이저리거로
자리 잡은 이후 처음이다. 2000년부터 4~5월에 100
타석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출루율 0.500 이상을 찍은
사례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12차례뿐이다.
추신수는 지난 시즌 28경기를 소화한 시점에서 타
율 0.324와 출루율 0.462를 기록했다. 1년 사이에 타율
과 출루율이 모두 4분 가량 훌쩍 뛰어올랐다.
◇진화 배경은 ‘선구안’=‘1억 달러의 사나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추신수의 활약에는 심리적인 여유에
서 비롯되는 선구안이 있다.
‘베이스볼레퍼런스닷컴’에 따르면 올해 추신수의
출루율은 2스트라이크 이후에도 0.422에 달한다. 2스
트라이크에서의 통상 출루율(0.298)보다 1할 이상 높
은 수치다. 볼카운트가 몰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공
을 골라내는 심리적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록이다.
추신수는 지난해 오른손 투수를 상대로 타율 0.317
를 기록하고도 왼손 투수에는 0.215로 약한 모습을 보
여 왔다. 그러나 올 시즌 좌완 상대 타율을 0.500까지
끌어올렸다. 오른손 투수를 상대했을 때(0.306)보다
확연히 높다. 이 역시 선구안이 바탕이 됐고, ‘공포증’
에서도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2011년 6월 조나선 산체스에게 왼손 엄지를 맞아 수
술대에 오른 이후 왼손 투수에 약점을 보여 온 추신수
는 올해 좌완투수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냈다. /연합뉴스

오승환, 한신 역사가 되다

9이닝 노히트...후지카와 넘어서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의 오승환(32)이 2013
년 팀을 떠난 마무리 투수 후지카와 규지(사카고 컵스)
의 그림자를 확실하게 지우며 새 수호신으로서 자리매김
했다.
오승환은 지난 6일 주니치 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9
이닝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며 자신의 등번호 22번을
먼저 썼던 팀의 마무리 선배 후지카와가 2009년에 세
운 8.2이닝 연속 무피안타 기록을 넘어섰다.
이날 오승환은 팀이 6-3으로 앞선 연장 12회말에 등
판해 1이닝을 사사구와 피안타 없이 무실점으로 봉쇄
했다. 공 12개를 던지는 동안 자신의 전매특허인 ‘돌직
구’ 11개를 뿌려 삼자 범퇴를 기록하는 등 9경기 연속 1
이닝 무피안타를 만들었다.
4시간 47분 동안 이어진 연장 혈투를 끝내면서 오승
환은 시즌 8세이브(1승)도 쌓았다.
7일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격렬한 싸움의 열기를 끈
오승환은 차가운 얼굴로 마운드에서 있었다”며 “투수
8명이 투입된 총력전의 마지막을 오승환이 닫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대한 선배(후지카와)를 넘어서는 한신의
새로운 수호신”이라고 오승환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오승환은 “야수들과 앞서 나온 투수들이
끝까지 이어온 경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막으려고 했
다”고 주니치전을 돌아보며 “9이닝 노히트는 큰 의미
는 없다”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